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 景 太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產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 央 共 販 場
☎ 967-4984
☎ 965-9551

支部會議 定立으로 團合과 會勢伸張에 기여토록

※협회는 지난 9月18日 생약 7~119호로 支部산하 각종모임체를 改編하여 支部會議 單一化로 통합, 再編運營토록 示達한바 있다.

溫故之情으로 團合하여 一絲不亂한 體制 確立에 앞장서자

10여년을 運營해온 支部산하의 各種모임체(綠生會, 同心會, 其他親睦會 등)는 其동안 會勢伸張을 爲한 寄與度도 많았지만 반면 外的인 잡음과 反目이 있었던 것도, 注目되어 왔습니다.

마침 정부당국의 감사에서도 客觀的 入場에서 판단해본 結果, 支部長 따로있고 綠生會長 따로있고 하여 마치 法人體가 二元化조직체로 運營 發展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支部長이 主管하는 分所長 會議體外는 公式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單一化 會議體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 本部에서는 여러번 會議를 召集하여 검토끝에 支部산하 各種모임을 支部長이 主管하는 支部會議로 其명칭을 개칭하면서 현재까지의 各종모임체를 개폐하고 재편성운영 하라는 基本方針을 示達한 것이 그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支部산하에서 公式으로 인정 되는 모임은 支部會議 單一化로 局限 되는 것이며 이에 所要되는 諸經費도 合法的으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제경비라 함은 회의비, 출장비, 교육비 등을 말함)

그런데 最近 이 개편 방침에 따라 各支部에서 개편作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今年 中으로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만 現在 여론을 集約해 보면 몇몇 산하에서는 회의적인 알력과 反目등 여론으로 개편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듯하니 여기 다시한번 强調해 두고저 합니다. 綠生會自體가 支部산하 分所長으로 구성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체문제는 고려 대상이 안되며 다만 名稱만을 支部會議로 개칭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본方針에 명시한 데로 확대 또는 감축하는 再編작업만 이루워지면 될 것으로 生覺합니다. 이제 協會도 成年을 넘어서면서 그 組織自體가 70~80年代에 比하여 倍로 비대하여 졌습니다. 많은 會員들이 신진대사를 이루면서도 날로 伸張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도 많고 여론 대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때 입니다. 溫故之情은 世上事입니다. 不滿要素가 있는 會員들도 일단 떠났다가도 생약分野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열중하고 있는 생약 生産에 많습니다. 協會는 이러한 모든 會員들을 위하여 기반을 접차 굳혀가고 있으며 안정基金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금년 추계부터 수매사업을 버릴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으니 섭사 골고루에게 혜택을 줄수는 없을지라도 생약유통질서 조절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니 支部산하 기간요원은 小를 버리고 大를 위하여 團合된 모습으로 재도약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편집부 제공)

생약재계 통합으로 생산농가 소득증대

92년 生藥材生産 실적 파악서둘러야

금년도 추계수확기를 맞아 작년에 위촉된 各 支部산하 生産지도委員께서는 다음 項目에 의거 보고서 양식을 미리 준비 92년 生産실적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이 보고서는 93년1월 中旬까지는 제출되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양식항목 : 지역별, 품목별, 면적, 수확량(근 또는 kg)(건재로 파악)

連載 韓方순례 <35>

<續>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골육의 관계가 조화를 못이루고 습윤하지 못하면 살이 견감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를 보고 골육상쟁의 표현이 적절한 것이었구나 하고 감탄할 대안(對岸)의 불법, 식품요법, 한방적인 약물요법과 더불어 순환경락의 강화법은 뒤의 해당란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맥(脈)、근(筋)、육(肉)、피모(皮毛)、골(骨)、외경(外勁)에 의한 진단

외경은 각 장기가 주관한다

맥,근,육,피모,골 등을 동양의학에서는 외경이라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해당되는 내장기가 주관하고 있다.

①맥은 심장이 주관하고

②근은 간장이 주관하며

③육은 비장이 주관하고

④피모는 폐가 주관하고

⑤골은 신장이 주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진단해 낼 수 있는 것이다.

①맥이 난조할 경우 : 맥이 쇠약해져서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②근이 뻣뻣한 경우 : 근이 늘어지거나 뻣뻣이 당겨져 급통이 오는 것은 간장이 병든 증상이다.

③살결이 무겁고 민첩성이 없을 경우 : 살결이 뿌듯하게 거북하며 무겁고 민첩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는 비장에 이상이 있는 징조이다.

④피모가 거칠면서 쇠약해 뼈가 약하여 골절하기 쉬운 상태이고 또 그런 경험을 해도 신장하고는 직결시키지 못한다.

물론 신장이 약하면 신장의 강화에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뿐이다.

신장이 단순히 배설과 이뇨작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이 신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 식품요법, 한방적인 약물요법과 더불어 순환경락의 강화법은 뒤의 해당란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맥(脈)、근(筋)、육(肉)、피모(皮毛)、골(骨)、외경(外勁)에 의한 진단

외경은 각 장기가 주관한다

맥,근,육,피모,골 등을 동양의학에서는 외경이라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해당되는 내장기가 주관하고 있다.

①맥은 심장이 주관하고

②근은 간장이 주관하며

③육은 비장이 주관하고

④피모는 폐가 주관하고

⑤골은 신장이 주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진단해 낼 수 있는 것이다.

①맥이 난조할 경우 : 맥이 쇠약해져서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②근이 뻣뻣한 경우 : 근이 늘어지거나 뻣뻣이 당겨져 급통이 오는 것은 간장이 병든 증상이다.

③살결이 무겁고 민첩성이 없을 경우 : 살결이 뿌듯하게 거북하며 무겁고 민첩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는 비장에 이상이 있는 징조이다.

④피모가 거칠면서 쇠약해 뼈가 약하여 골절하기 쉬운 상태이고 또 그런 경험을 해도 신장하고는 직결시키지 못한다.

물론 신장이 약하면 신장의 강화에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뿐이다.

신장이 단순히 배설과 이뇨작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이 신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 식품요법, 한방적인 약물요법과 더불어 순환경락의 강화법은 뒤의 해당란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92 계약재배분 수매 안내

■ 92년도 계약 재배분에 한함

계약 재배 내용

품 목	재배면적	재배지역	비고
삼도시호	1,000,000평	전 국	1년생
황 기	100,000평	포천군, 이천군 제천군, 원주군	〃
토당귀	120,000평	평창군, 이천군 포천군, 제천군 태안군, 원주군 양평군	〃

수매 실시 내용

구분 \ 품목	삼도시호	황 기	당 귀
수매대상 지 역	전 국 재배농가	포천군 이천군 제천군 원주군	평창군, 제천군 원주군, 태안군 포천군, 이천군 양평군,
수매기간	92.12. 1~ 93. 2.15	92.11. 1~ 92.12.20	92.11. 1~ 92.11.30
수매중점 점검사항 (품질규격)	뇌두절단, 건조세척, 솜털 제거된 상품	상·중·하품으로 선별	생근으로 수매
수매가격	1 kg 18,300원	기계약된 가격으로 수매	

수매 문의처

■ 협회본부 : (02) 967-8133 · 969-6875
■ 경기 : • 이 천 (0336) 33-4838
• 포 천 (0357) 535-2593
• 양 평 (0338) 73-5617
■ 강원 : • 평 창 (0374) 32-7887
• 원주군 (0371) 45-6037
■ 충북 : • 제천군 (0443) 42-3100
■ 충남 : • 서 산 (0455) 665-3753
• 태안군 (0455) 674-4461
■ 전북 : • 무주군 (0657) 22-2235
■ 전남 : • 벌 교 (0694) 857-5455
■ 경북 : • 경산시 (053) 82-0077
■ 경남 : • 합천군 (0599) 33-0770
■ 제주 : (064) 53-8294

농림수산부 허가 제24호
사단법인 韓國生藥協會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대산빌딩 301호)
협 회 : 967-8133 · 969-6875
공 판 장 : 967-4984 · 965-9551